

제목: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라"

말씀: 에베소서 5장 8-21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너무나도 쉽게 옛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걸어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까? 오늘 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 1) _____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3절)
- 2) _____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 3) _____ 해야 합니다. (18절)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성탄 헌금	
생명의 삶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에베소서 5장 8-21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Ephesians 5: 8-21 신약 315 페이지 Presider
-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ways to pleasing to our God Rev. Kim
- 찬양 510(2761)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같이
Praise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온 맘 다해 다같이
Praise and Prayer With my whole heart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아버지의 도움)

겨울이 되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자주 다녔던 것이 생각나곤 한다. 너무 어려서 그곳이 북한산성 있었는지 아니면 남한산성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산을 어디서나 오를 수 있었던 그 오래 전 겨울에도 주말에 등산을 올라갔다. 어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겨울 눈 덮인 산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눈이 많이 날인데 산 위 성벽 옆으로 가파른 길이 나 있었다. 보통 등산길이었었는데 그곳을 따라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가야했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날 눈이 많이 왔고 올라가는 길은 미끄러웠다. 아버지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길과 빙판길에 안전을 도와주는 장비인 '아이젠(Eisen)'을 달아 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도 길은 가팔랐고 눈이 많이 와서 매우 미끄러웠다. 어린 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로 올라 갈수록 더 힘이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마 그리 위험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셨겠지만 어린 내에게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좁은 경사 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나를 얼마 떨어진 아래에서 받아 주셨다. 그리고 같이 미끄러졌다. 아버지와 나는 잠깐 이었지만 같이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크지 않은 나무에 아버지 다리가 걸려 멈추게 되었다. 그 때에 나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나를 보고 많이 웃으셨던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 후로는 아버지가 계셔 늘 든든했고 다른 산으로 등산을 가더라도 늘 나를 먼저 앞세우시며 길을 알려 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아직도 높은 산에 대한 그리움과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 가고 싶은 북가주(Northern California)에 있는 높은 산에 대한 꿈이 있다.

이 생각이 날 때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가 고아와 같았을 때에 품으시고, 내가 미끄러져 죽을 것 같을 때에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러한 나를 보고 웃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체험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나는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 분명히 내가 미끄러질 때에도 나를 붙잡고 함께 미끄러지는 듯하지만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아는데도 걱정과 근심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벌써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걱정 할 것도 낙심할 것도 실은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2서 1장 3절)고 말씀하신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 하셨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은 떠나간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6) 하나씩 새롭게 진행 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잘 정착되도록
- 7)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8)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2020년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헌금 봉투

헌금 봉투가 준비 되었습니다. 봉투 몇 개씩을 가지고 가서서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헌금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12월 행사

12월 31일(화)	오후 11시 20분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
1월 5일(주)	예배 후	2020년 계획 나눔
1월 12일(주)	예배 후	2019년 결산/예산 모임

7. 생명의 삶

1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5입니다. 구입하셔서 매일 같은 구절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